

겨울 철새들 '동안거' 하는 피안의 땅



철원 평야의 철새들.

사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 하는
108사찰 생채기행
(23) 철원 화개산 도피안사

봄은 지금 어디쯤 오고 있는 걸까. 우수(雨水)를 눈앞에 두고 봄 처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옛 사람들은 절기를 생태계의 변화에 견주어 표현했다. 그래서 우수를 '수달이 물고기를 잡아 늘어놓고, 기러기가 북으로 날아가는 절기'라 하였다.

근래 들어 반생태적인 물고기 방생 대신 겨울철새 먹이주기나 조류방생이 새롭게 선을 보이기 시작했다.

동안거를 끝낸 철새들이 귀향채비를 하고 있는 철원 도피안사를 찾아 길을 나섰다.



철원 도피안사.

철원 땅에 들어서면 놀랍게도 제주도에서나 볼 수 있는 현무암들이 곳곳에 눈에 띈다. 이 지역에 화산이 폭발한 것은 추가령 구조곡이 생기고도 오랜 시간이 지난 일이다. 그때 흘러내린 용암이 구조곡을 뒤덮고, 더러는 구조곡을 따라 흘러내려 넓은 평원을 이룬 것이 지금의 철원평야이다. 지질학상으로는 '용암대지'라고 부른다.

기러기들이 길 옆 논밭에 시커멓게 앉았다. 기러기들은 철원의 철새 먹이주기 방생행사의 주

헬기 굉음·관광버스

날알뭉은 채 갈아엎은 논...

두루미들의 겨울나기 위협

대상이 된다. 먹이는 주로 벼와 옥수수 등이다. 기러기들은 미각이 예민해서 목은 옥수수는 별로 즐겨하지 않는다. 그리고 먹이를 줄 때는 철새들이 없는 곳이다 주어야 한다. 먹이를 준답시고 철새들이 있는 곳에 사람들을 내려놓으면 철새들이 급방 도망가고 만다.

사람들에게 한번 놀란 철새들은 그곳을 다시 찾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또 중요한 것은 방생방법 등으로 너무 긴 시간을 현장에서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월정리에서 옛 철원 시가지로 가다보면 샘통(물숯을터)을 지나가게 된다. 현무암 구름지대에 자리한 샘통은 제4기 화산활동기간에 생긴 천연 샘이다. 사계절 내내 수온 15℃의 물을 내보내는,

말하자면 노천탕 같은 자연 연못이다. 이 물이 드넓은 철원 평야를 적시고 철원 사람들의 목을 축여준다. 철새들을 철원으로 불러들이는 것도 알고 보면 결국 이 샘통 덕분이다.

샘통을 지나 도피안사로 가는 길은 옛 철원 시가지를 관통하는 길이다. 군데군데 두루미 가족들이 한가로이 곡식을 주워 먹고 있다. 철원의 두루미 배움길은 아쉬움이 많다. 진주에서 시작된 3번곡도가 최근 신탄리를 지나 민통선 안으로까지 들어오면서 주위환경이 많이 변하였다. 수시로 날아다니는 헬기들의 굉음, 안보관광을 핑계로 드나드는 많은 차량들, 해마다 늘어나는 비닐하우스, 철새들의 식량인 낱알들을 묻은 채 갈아엎어진 논... 이 모두가 겨울철새들의 평화를 깨뜨리는 열악한 요인들이다.

노동당사를 지나면 왼쪽으로 화개산(花開山)이 보인다. 높지도 깊지도 않은, 이 땅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아늑막한 마을 뒷산에 불과한 산이다. 안개판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그 산속에 천년 고찰 도피안사(到彼岸寺)가 자리하고 있으리라 짐작도 못할 그런 야산이다.

도피안사가 이 산에 얹게 된 인연사가 <유점사 본말사지(楡岾寺本末寺誌)>에 소상히 실려 있다. 이에 따르면 경문왕 5년(865) 도선 국사가 철불상을 조성해 율리에서 자리한 안양사(安養寺)에 봉안하기 위하여 가던 도중 화지리 암소고개에 이르러 잠시 쉬게 되었다. 그런데, 쉬는 사이에 불상이 소와 함께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

백방으로 찾아 나선 끝에 다행히 화개산 골짜기에서 불상을 찾았다는 것이다.

'아유차쳐 무피난처(我有此處 無彼難處)로다. 부처님 스스로 이곳으로 오셨으니 이운을 중단하

고 이곳에 절을 짓자'

도선은 화개산에다 암자를 지어 불상을 모시고 자 했다. 그러나 화개산 산세를 돌아보니 도저히 부처님을 모실만한 피안의 형국이 아니었다. 바람(外勢)이 불면 연꽃처럼 흔들려서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연화부수형 땅이었다.

이에 도선은 절터에 철불과 함께 석탑을 세워 비보(禪補)하고서야 비로소 절을 지을 수 있었다.

요즘 도피안사는 불사로 좀 어수선하다. 산 이름[花開山]에 걸맞게 야생화단지를 조성한답시고 중장비를 동원해 엄청난 면적의 숲을 훼손시키고 산자락을 벌갠 게 밍글었다.

철원군에서 관광지 개발 차원에서 벌인 장난이 아닌지 모르겠다. 야생화 단지도 좋지만, 무성하던 숲을 망가뜨리면서까지 무리하게 공사를 벌일

야생화 단지 조성위해

무성하던 숲

벌갠 채 밀어내 '황당'

까닭이 있었을까 싶다. 기존에 있던 숲을 훼손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암자에 초본류를 식재할 수도 있고, 초본류가 아닌 목본류를 중심으로도 꽃나무 숲을 조성할 수 있었을 터인데, 숲만 애꿎게 망가뜨려 놓았다. 사찰 가꾸기도 좋지만, 너무 작위적으로 불사를 벌이면 탈이 난다.

도피안사 앞마당에는 수령 550년의 느티나무가 한 그루 서있다. 고목인데도 불구하고 아랫줄

기부터 부챗살처럼 퍼져 있어서 화마와 전쟁으로 파란만장했던 삶을 보는 듯하다.

대적광전 앞 석탑은 지난 1966년부터 해마다 금와보살(金蛙菩薩)이 나타나 세간의 주목을 받은 탑이다. 인문은 이 불가사의한 개구리의 정체를 '금개구리'라고 발표했지만, 아무래도 청개구리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석탑의 수직벽을 기어오를 수 있는 개구리는 발바닥에 점액을 가진 청개구리뿐이기 때문이다. 또, 1센티미터 밖에 안 되는 돌 틈에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몸집도 청개구리 밖에 없다. 그리고 동면에 들어갈 무렵이면 주위의 색깔에 맞추어 보호색을 띄는데, 발견 당시 개구리가 회갈색의 불규칙한 무늬를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대적광전 뒤로 화개산으로 오르는 오솔길이 나왔다. 소나무와 활엽수들이 뒤섞인 호호림이지만, 인간의 간섭을 너무 받아 자연성이 크게 떨어져 있다. 게다가 전정 통에 식생이 많이 훼손되고 고참급 나무들이라야 수령이 기껏 30-40년 정도이다. 게다가 지하벅커를 비롯한 군사시설들이 산을 곳곳에 파헤쳐서 화개산이라는 미명을 참혹케 만들고 있다. 식생의 아쉬운 점을 보는 듯하다. 언제쯤 통일이 되어 화개산이 되살아날 수 있을까.

화개산 정상에 오르면 학저수지가 내려다보인다. 10년 전(1992) 민통선이 해제되기 전까지만 해도 저수지 주변 들녘은 두루미와 재두루미의 친정마을이었다. 그래서 이름도 '학저수지'이다. 때마침 몇 마리의 두루미들이 도피안사 쪽으로 편대비행을 하고 있다. 저녁 예불에 참여러 오는 길인가...

http://cafe.daum.net/templeeco
글·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윤년 한강 水上法堂 방생도량 3000배 관음정진 방생대법회

수도서울의 중심을 흐르는 민족의 젖줄 한강 수상법당에서 나라번영과 불자님의 원력성취를 기원합니다

전국의 불자님 가정에 부처님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수도서울의 중심을 유유히 흐르는 민족의 젖줄 한강의 유일한 수상법당 방생도량에서 윤년 갑신년을 맞아 업장소멸 소원성취기원 3000배 정진 방생 대법회를 전국의 인연불자님이 대거 동참하시는 가운데 기도정진소임 의전스님단의 지극정성 기도와 나라번영과 불자님을 위한 축원으로 잠엄하게 봉행됩니다. 아울러 발원불자님의 인연영가와 유주구주 고희의 이고득락을 기원하는 천도법회와 방생 기도를 함께 봉행합니다. 전국의 인연불자님께서는 수회 동참하시어 선근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南無 관세음보살 마하살

※ 기도입재 : 2004년 3월 25일(목) 오후5시 ※ 장소 : 한강 방생도량 법당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동 한강시민공원 천호대교와 올림픽대교사이 소재

※ 교통편 : 1. 잠실출발 : 잠실 호텔롯데월드 옥외주차장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30분 출발 법회인도차량 대기. 무상운행 잠실역에서 롯데월드 방면으로 나와 롯데쇼핑센터 끝나는 지점까지 곧바로 오시면 인도하여 드립니다.

2. 개별동참 : 88올림픽대로 잠실방향으로 진행하여 천호대교 지나 천호대교와 올림픽대교 사이 우측 한강시민공원으로 진입

※ 매주정진 :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 오후 11시 (입재후 2004년 11월 11일까지 매주 목요일 기도법회 33회 봉행발원)

- 공양 : 청정자연식으로 저녁공양 본사에서 준비합니다.
- 법회 동참금은 불자님 스스로의 정성으로 합니다.
- 불자님의 신심증장을 위하여 차량과 공양등을 본사에서 감당합니다.
- 기도에 동참하신 불자님께 108염주 · 단주 · 범요집 · 불교경전등을 무상보시합니다.
- 수행생자녀 합격성취 기원 하시는 불자님을 위하여 수행생, 학업자가 뚝에 지나는 지혜제일 문수보살상 목걸이를 보시하여드립니다.
- 금번 3000배 정진과 방생기도는 수행생과 학업자를 위한 축원, 건강성취 축원등으로 동참하시는 예가 많습니다.
- 대법회의 원만한 봉행을 위하여 동참하시는 불자님은 가능한 사전에 전화문의 하시고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봉행·문의 : 서울 소림정사 불교아카데미 총동무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32

TEL : 3446-2158, 2185/3443-9871 ~ 7/511-6210 ~ 5

※ 법회후 귀가 교통편의 제공 : 오후11시 기도 마친후 각방면 차량을 통하여 불자님의 거주지역 가까운 거리까지 차량운행할 예정입니다.

